

구창모·원두재 등 새해 주목받는 소띠 스포츠스타들

구창모, 올해 9승무패 평균자책 1.55...원두재, 울산현대 우승 일조
 국내 레프트 여자배구 GS칼텍스 강소희·양궁 이우석 도쿄 금겨냥

1997년생 소띠 스포츠 스타들이 신축년 새해를 밝게 빛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열려 이들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최고 투수 등극한 구창모, 여자 배구 스타 강소희

프로야구계 1997년생 대표주자는 차세대 국가대표 에이스로 떠오른 구창모(NC 다이노스)다.

2015년 NC 2차 1라운드 3순위로 입단한 구창모는 2020시즌 전반기에만 13차례 선발 등판해 9승 평균자책점 1.55으로 호투하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패전은 한 차례도 없었다. 팔꿈치 통증으로 8, 9월 마운드에 서지 못했지만 11월 열린 한국시리즈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압도적인 구위를 뽐내며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유망주 껍질을 깨고 나온 만큼 내년 시즌 구창모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상을 꿈꾸는 한화 이글스에는 1997년생 강재민이 있다.

용마고-단국대를 졸업한 강재민은 2020년 2차 4라운드 38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됐다.

데뷔 첫 해인 2020시즌 50경기에서 1승2패14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2.57을 수확했다. 시즌 내내 최하위에 머문 한화는 강재민의 발견에

위안을 삼을 정도였다.

내년부터는 한화 '별꽃 투혼'의 상징인 등번호 55번까지 단다. 55번은 정민철 한화 단장이 일본 진출 전 달았던 번호다. 이후 윤규진이 이어받았다. 한화에서 의미가 큰 55번을 달게 됐다는 건 팀에서도 강재민이 주축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봤다는 의미다.

부활을 다짐하고 있는 이영하(두산 베어스)도 빼놓을 수 없는 1997년생 소띠 스타다. 2019년 17승(4패)을 올리며 토종 에이스로 활약한 이영하는 2020년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5승11패 6세이브 평균자책점 4.64에 머물렀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 삼아 2021년에는 재기를 노린다.

프로배구에서는 국가대표 레프트 강소희(GS칼텍스)가 주목받는 만23세 소띠다.

지난 9월 열린 KOVO컵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강소희는 소속팀 GS칼텍스의 우승과 도쿄올림픽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시즌을 마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도 얻게 된다.

KB손해보험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프트 김정호도 2021시즌이 기대되는 1997년생 소띠 스타다. 김정호는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선두를 달리면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상위권 경쟁으로 이끌고 있다.

◆축구 런던올림픽 메달 재현 노리는 1997년 소띠 선수들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남자 축구에서도 새해 자신의 해를 맞아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다.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의 중심에 서며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한 원두재가 1997년생 소띠다.

내년 도쿄올림픽 본선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게 유력한 선수로 올해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일본 J리그를 거쳐 올해 K리그에 데뷔한 그는 울산 현대가 8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멀티자원으로 기성용(서울)을 연상하게 하는 전방 패스와 압박 능력이 장점이다. 키가 187cm로 피지컬도 좋다.

지난 10월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평가전에선 파울루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원두재와 함께 도쿄행을 이끈 동갑내기 이동준(울산)도 주목해야 한다. 11월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골을 터뜨리는 등 김학범호의 '밀어맨' 공격 자원이자.

이름이 올림픽 개최지 도쿄의 한 자어(東京·동경) 독음과 같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남다르다.

독일 분데스리가2에서 활약 중인



구창모(NC 다이노스)

백승호(다름스타트)는 최근 팀 내 입지를 탄탄하게 했고, U-23 챔피언십 우승 수문장 송범근(전북)은 K리그 4연패에 일조하며 도쿄에서도 잔물방어를 예고한 상태다.

올림픽 축구는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하고, 23세 이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997년생 선수들은 와일드카드 외에 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1997년 선수들을 와일드카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 모두 출



원두재(울산 현대)

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흥미롭다.

◆도쿄 금겨냥한 양궁 이우석

군인 신분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우석(코오롱)은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남녀 각 3명을 최종 선발한다.

일찌감치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받았다. 한국 양궁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팀 선배 김우진(정주시청)과 정정당 당한 승부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이우석은 지난 10월 막을 내린 내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4



강소희(GS칼텍스)

위로 통과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꿈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에는 내년 3월 3차 선발전을 통해 남녀 각 8명을 선발하고, 해당 선수들은 자체 평가전을 거쳐 도쿄올림픽 본선에 도전한다. 남녀 각 3명을 최종 선발한다.

일찌감치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받았다. 한국 양궁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남녀 개인전·단체전) 석권에 성공했다. 남녀 혼성전이 추가된 도쿄올림픽에서도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뉴스

임성재, PGA 내년 시즌 기대되는 골퍼 30인 선정

내년 9월 초 챔피언십, 랭킹 상위 30명만 나설 수 있어



임성재가 내년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설 30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PGA는 2021년 PGA 투어 챔피언십 출전 예상 선수 30명을 예측하면서 임성재를 포함시켰다.

내년 9월 초 예정된 투어 챔피언십에는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나설 수 있다. 꾸준한 활약으로 포인트를 쌓아야 투어 챔피언십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다.

30명에 임성재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그가 내년에라도 정상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의 방증이라도 무방하다.

PGA는 30명을 나열하면서 "특별한 순서는 없다"고 밝혔다. 임성재는 1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PGA는 "이미 올해 8개의 대회에 나선 임성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내년 초에는 혼다 클래식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임성재는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PGA는 올해 역시 임성재가 무난히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스티 존슨, 브라이언 디셴보(이상 미국), 로리 매킬리언(북아일랜드), 존 램(스페인) 등 PGA 투어를 대표하는 쟁쟁한 골퍼들이 30명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타이거 우즈,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는 부상 등으로 30명에 못 들 것으로 예측됐다.

뉴스

“샌디에이고, 김하성 좋은조건 계약...빠른볼 적응해야”

팬그래프닷컴, 김하성 집중 조명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행이 유력한 김하성(25)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샌디에이고가 김하성과 좋은 계약을 맺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김하성이 빠른 공 대처 능력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그래프닷컴은 30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가 당장 선발로 나설 수 있고, 잠재력도 있는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 리그 진출을 노리는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계약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팬그래프닷컴은 김하성에 대해 "지난 두 시즌 동안 wRC+(조정득점출력) 140이상씩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30홈런을 때리면서 삼진보다 많은

볼넷을 골라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62번의 도루 시도에서 56개를 성공했다"며 "김하성은 KBO리그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선수였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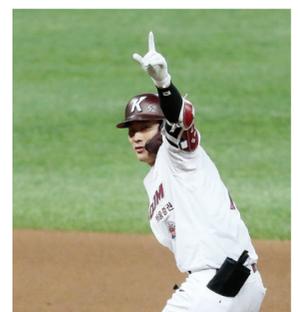
그러면서 운동 능력이 뛰어난 김하성은 빠른 발과 평균 이상의 어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고 헛스윙 비율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걱정되는 부분도 짚었다.

매체는 "김하성의 2020년 가장 빠른 타구 속도는 105마일(약 169km)이었다. 이는 메이저리그 타자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타구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빠른 공 대처 능력도 미지수라고 봤다.

"KBO리그에는 시속 88~90마일(약 142~145km)의 직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다. 95마일(약 153km)의 공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며 "국제대회에서 강속구를 접해봤어도 매일 그런 공



을 상대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빠른 직구에 대처한다 해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4년 25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알렸다.

팬그래프닷컴은 종합적으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영입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승균 전 KCC 감독, 해설위원으로 코트 복귀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해설자 되도록 노력할 것”

프로농구 추승균 전 전주 KCC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코트에 돌아온다.

KBL 주관 방송사 스포티브는 30일 "추승균 전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합류한다"고 전했다.

추 위원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KCC 지휘봉을 잡았다. 한 차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끌었으나 어렵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다.

현역 시절에는 공수 균형이 완벽에 가까운 포워드로 명성을 떨쳤다.

정확한 슈팅과 상대 득점원을 쫓아 공격 수비력이 탁월했던 그는 통산 738경기에서 평균 13.6점 2.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소리 없이 강한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통산 1만19점을 기록, 국내 선수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챔피언에 5

차례 올랐고,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상도 1회 수상했다.

추 위원은 "해설을 경험하고 싶었다. 다시 코트에 서니까 설렌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노력하겠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해설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해 1일 서울 삼성-창원 LG의 경기부터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다.

뉴스

여자프로농구 김단비, 5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



를 기록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김단비가 총 1만259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전했다.

2016~2017시즌을 시작으로 5년 연속 1위다.

김단비는 국가대표 불박이로 신한은행 전력의 핵심이다. 이번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평균 37분24초 동안 18.6점 9.3리바운드 5.3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2위는 5표 차이로 결정됐다. 1만 179표를 얻은 신지현이 1만174표를 획득한 팀 동료 강이슬(이상 하나원투)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팀별로는 용인 삼성생명파워스타는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이소희, 김진영(이상 BNK), 한염지(신한은행), 심성영(KB국민은행), 김단비(삼성생명)가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됐다.

뉴스